지방자치 선도 특별도 위상 약화되나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주민자치회 도입에 특별도 퇴색 우려

선제적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 등 시급

道 "국회 법안 개정 과정 면밀 검토"

정부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재 관련 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를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오히려 다른 시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주민 중심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가운데 제25조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변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6단계 제도개선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신설을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과 '특별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 관련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선도해 온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자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해왔음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서는 뒤처지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행정권 보장 시장 권한·책임 행정 명문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 임기 4년·특정 정당 추천 안돼

재임 중 영리사업 금지·퇴직 규정도

자치법규 발의 요청 조례 근거 마련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체제로 전환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나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해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행정시를 행정자치시로 개편, 제주자치도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시의 행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자치시의 취지가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권의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의 선출에 대해선 임기 4년, 연임 3회 제한으로 규정해 현행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했다.

행정자치시장 선출은 지자체 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시장 후보는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금지했다. 또 행정자치시장은 재임 중 제주자치도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자치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시장의 퇴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하거나 행정자치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정당의 당원가입, 행정자치시가 통합 또는 폐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행정자치시장의 권한에 대해선 조례를 통해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6차산업 국제박람회 제주서 첫 선 보인다

10월 국제컨벤션센터서 개최

융·복합 혁명으로 일컫는 6차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전문가들과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꾀하는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파밍플러스 제주페어'(Farming+@jeju Fair)가 제주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6차산업과 관련한 국제박람회가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6차산업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고성보, 안순화, 지은성·이하 조직위)는 6차산업의 가치와 미래를 국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파밍플러스 제주페어'를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6차산업, 가치와 미래를 더하다'를 주제로, 전세계 10개국 90여개 기업·기관·업체에서 130부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서부지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연내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서부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부하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83억원을 들여 한림읍·애월읍·한경면 11개 마을에 하수관로 39.8㎞, 배수설비 218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애월읍 어음리, 한림읍 한림리·상명리 일원 1~3공구의 사업을 지난달 완료했으며, 한림읍 월림리·금악리·상대리·명월리 등 4~6공구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서부하수처리구역 확충과 1단계 사업 보완을 위해 위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수관로 21.1㎞, 배수설비 1492가구 정비를 2단계 사업 목표로 삼고 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처리 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시설을 확충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도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道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토지 매입 검토

강성민·이승아 의원 의견 요구에 답변

강성민·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6일 제주도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토지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제주도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입을 비롯한 향후 활용에 대한 견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23일 영사관에서 매각 의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제주도에 토지를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서쪽에 5116㎡(1550평)의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이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제주도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 2회 전국 시(詩)낭송 제주 대회 공고

☐ **개최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13시부터
☐ **개최장소**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구 주소(지번):건입동 261)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9일(월)~9월 20일(금) 오후 6시 마감
☐ **본선진출자 발표** : 2019년 9월 27일 본인에게 개별 통보
☐ **참가자격** : 시를 사랑하는 전국 성인 누구나.
☐ **참가 시(詩)** : 지정 시1편
사)제주시낭송협회 대회지정 시(詩)로 선정
☐ **접수방법** : http://sinangsong.kr/ (홈페이지)
(사)제주특별자치도시낭송협회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MP3파일로녹음파일, 시원문첨부후, 이메일(saryeni@hanmail.net) 또는 협회 홈페이지로 접수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제2회 전국 시(詩) 낭송 제주대회 참가신청서양식.hwp』
☐ **참가비** : 없음
☐ **안내 및 문의** : **사무국장 최현숙** 010-9944-2995
부 회 장 강서정 010-9838-9992
☐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행사 당일
☐ **시상내역**
- **대 상 1명** (도지사상장과 시낭송가증서) 상금 100만원
- **금 상 2명** (도의회의장상장과 시낭송가증서) 상금 각 50만원
- **은 상 2명**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상) 상금 각 30만원
- **동 상 3명** (제주문인협회장상장,제주작가회의상장) 상금 각 20만원
- **장려상 5명** (협회상장) 상금 각 10만원
- **특별상 1명** 제주일보사장상 상금 20만원

(사)제주특별자치도시낭송협회장 오 상 석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일보,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묘적 피해 주의

최근 제주에서 묘적(사정)을 국유화로 만들어 2년이내 매입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수수료 700만원(계약금 50%)을 요구 홍보 계약중인 제주 모업체가 있으니 더 이상 계속되는 정보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묘적(사정)국유화진행 절차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무주부동산신고→
2년내 조사 파악후 재경부 등기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년간 관리후 매각
가능(특혜 없음), 총 약 12년 소요

확인전화 : 조달청 070-4056-6401
한국자산관리공사 064)740-0502

묘·정리 대행업체
(주)푸른섬
T. 064)725-2237

감귤 신품종 분양

2020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순수 천연성분의 명품
파워당케어
건강기능 식품

한국식약처(KFDA)가 "식후 혈당상승에 도움을줄 수 있다"고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당뇨인들을 위하여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도록 정성을 다해 제조된 식품입니다

파워당케어 (Powerdang Care)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생활습관 불규칙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010-3598-7080